

[6·4지선]성희직 전 3선 도의원, 정선군의원 출마 눈길

등록 2014.04.06 10:48:37 | 수정 2016.12.28 12:33:59



【정선=뉴시스】홍춘봉 기자 = 성희직 전 강원도의회 부의장이 6·4지방선거전에 정선군의원 후보로 출마를 결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.

도의회를 떠난 뒤 광산진폐권역연대 상담소장 등 진폐환자 돕기에 10년 넘게 활동하다가 갑작스럽게 그가 지방선거에 다시 나타나자 정선군 군의원 후보자들이 긴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.

그는 홍보 유인물을 통해 '폐광지역 해결사-성희직이 돌아왔다'며 선거전 컴백 배경을 밝혔다.

성 후보는 "이번 선거에 내가 왜 출마를 하게 됐는지 또 당선되면 무슨 일을 할지 선거기간 유권자들에게 알릴 방침"이라며 "선거공약도 다리를 놓고 예산을 확보한다는 식이 아니라 정책공약으로 차별화 하겠다"고 말했다.

특히 그는 이번 선거에서 ▲돈 안 쓰는 선거 ▲선거운동원 없는 선거 ▲상대 후보 비방 안 하고 정책선거에 주력하기로 했다.

그의 이력은 매우 흥미롭게 채워져 있다.

고향(경북 영천)에서 포크레인 기사와 중장비 임대사업을 하다 부도를 내는 바람에 삼척탄좌 채탄광부로 탄광촌과 인연을 맺은 그는 동료를 돕다가 해고된 뒤 시집을 내고 3선 도의원을 지냈다.

신장기증으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도 받은 그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후보 강원도선대본부 대변인과 유세위원장을 맡기도 했고 광부의 하늘 등 시집과 수필집을 출간했다.

그는 "지방선거가 축제가 되도록 가장 모범적인 깨끗한 선거를 약속한다"면서 "당선되면 정말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기초의원의 롤 모델이 되도록 할 방침"이라고 강조했다.

강원민예총 지회장을 역임한 그는 시집 '광부의 하늘' 수필집 '세상을 움직이는 감동의 힘-감동' 등 4권의 저서를 내기도 했다.

casinohong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